

## 주요 노동동향

### ● 생산 및 물가 동향

#### ◆ 2021년 2월 생산은 전월대비 2.1% 증가(전년동월대비 0.4% 증가)

-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2.1% 증가함.
  - － 전년동월대비로는 광공업, 서비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0.4%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통신·방송장비,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 화학제품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4.9% 증가함(전년동월대비 +1.0%).
-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 부동산 등에서 줄었으나, 숙박·음식점, 운수·창고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1.1% 증가함(전년동월대비 +0.7%).

#### ◆ 2021년 2월 소비는 전월대비 0.8% 감소, 설비투자는 2.5% 감소

- 소매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9.7%) 판매가 늘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7%),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7%)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0.8% 감소함(전년동월대비 +8.4%).
- 설비투자는 선박 등 운송장비(10.4%) 투자가 늘었으나,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6.2%) 투자가 줄어 전월대비 2.5% 감소함(전년동월대비 +7.0%).
-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6.5% 증가,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대비 24.3% 감소함.

〈표 1〉 최근 경제 일반 동향

(단위 : %, 전기(월)대비, ( ) 안은 전년동월대비)

		연간			분기				분기				월		
		2018	2019	2020	2019				2020				2020	2021	
					1/4	2/4	3/4	4/4	1/4	2/4	3/4	4/4	2월	1월p	2월p
생산	전산업	1.5	1.0	-1.2	-0.6	1.1	1.0	0.6	-1.8	-3.0	2.8	1.6	-3.1	-0.6( 1.5)	2.1( 0.4)
	광공업	1.4	0.4	-0.4	-1.9	1.9	1.8	0.7	-0.6	-6.5	6.0	2.9	-2.7	-1.2( 7.8)	4.3( 0.9)
	제조업	1.3	0.5	-0.3	-2.1	2.1	1.8	0.9	-0.6	-6.9	6.4	3.1	-2.9	-1.5( 7.7)	4.9( 1.0)
	건설업	-4.2	-2.3	-4.1	2.6	0.2	-2.2	1.0	-0.7	-2.9	-2.8	2.5	-1.5	-7.7(-8.1)	6.5(-8.7)
	서비스업	2.3	1.4	-2.0	0.3	0.5	0.7	0.4	-2.9	-1.3	2.0	0.9	-3.5	-0.1(-1.8)	1.1( 0.7)
소비	소비재 판매	4.3	2.4	-0.2	1.5	0.2	-0.1	2.0	-5.7	5.9	-1.1	0.9	-6.5	1.6( 0.0)	-0.8( 8.4)
투자	설비투자	-3.6	-5.7	6.0	-3.4	2.1	2.0	3.4	-1.0	2.7	2.2	0.8	-6.5	6.5(19.6)	-2.5( 7.0)
물가		1.5	0.4	0.5	-0.4	0.4	-0.1	0.3	0.5	-0.8	0.6	0.1	-0.2	0.5( 1.1)	0.1( 1.5)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를 포괄함.
- 3) 2019년 이후 전산업 연간 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0년 3월, 2021년 2월, 2021년 3월 기준임.
- 5) p는 잠정치임.
- 6) 생산, 소비,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월)대비,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
- 7) ( )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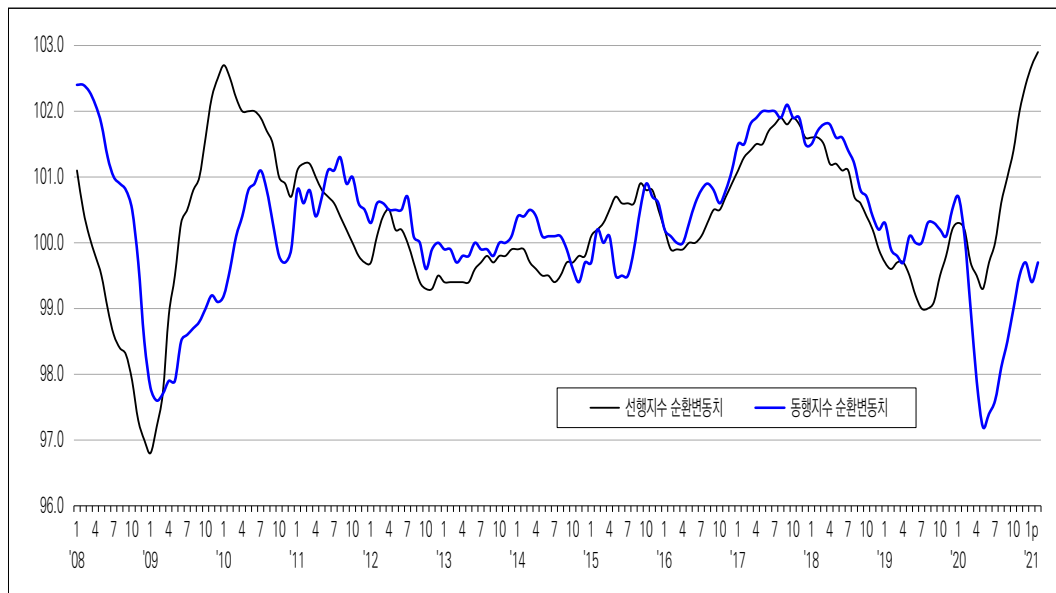
### ◆ 2021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상승(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3% 상승)

- 2021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16(2015=100)으로 전월대비 0.1% 상승함(전년동월대비 1.5%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 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교통(1.3%), 주택·수도·전기·연료(0.3%), 음식·숙박(0.1%), 교육(0.2%), 기타 상품·서비스(0.2%), 보건(0.1%), 통신(0.1%)은 상승, 식료품·비주류음료(-0.3%), 가정용품·가사서비스(-0.7%), 의류·신발(-0.3%), 오락·문화(-0.1%), 주류·담배(-0.1%)는 하락함.
  - 생활물가지수의 경우 식품은 전월대비 변동 없으며, 식품 이외는 0.5% 상승하여 전월대비 0.3% 상승함.

◆ 2021년 2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4% 상승,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5% 상승

-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 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상승함.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상승함.

[그림 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5=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KOSIS.

(이기범, 동향분석실 연구원)

●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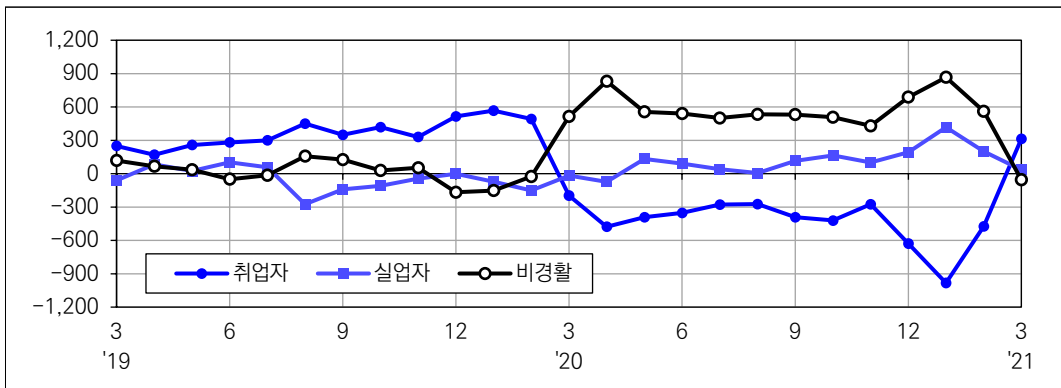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증가 전환,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 전환

○ 2021년 3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1만 4천 명 증가하며 큰 폭으로 증가 전환함(전월대비<sup>1)</sup> 12만 8천 명 증가).

- (산업별)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폭 축소가 이어짐. 피보험자는 증가 추세를 이어 감. 음식·숙박은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3월 고용이 개선되며 취업자 감소폭이 크게 축소됨. 교육서비스업은 20대와 임시직에서 고용이 반등하며 증가 전환함. 공공행정과 보건·복지는 3월에도 증가폭의 확대를 이어 감.
- (연령별) 3월은 20대와 50대 취업자가 증가로 전환함. 30대와 40대는 감소폭이 축소되고 60세 이상은 증가폭이 확대됨. 반대로 비경활은 20대, 30대, 50대에서 감소 전환, 40대와 60세 이상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 (종사상 지위별) 3월 상용직은 증가폭이 확대됨. 임시직과 일용직은 음식·숙박 및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고용이 개선되며 증가로 전환함.
- (일시휴직자) 3월 일시휴직자는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 음식·숙박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18만 명 감소함. 임시직과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에서 크게 감소함.
- (실업자) 3월 실업자는 증가폭이 축소됨. 주로 제조업, 건설업, 보건·복지 등에서 감소함.

[그림 1]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증감 현황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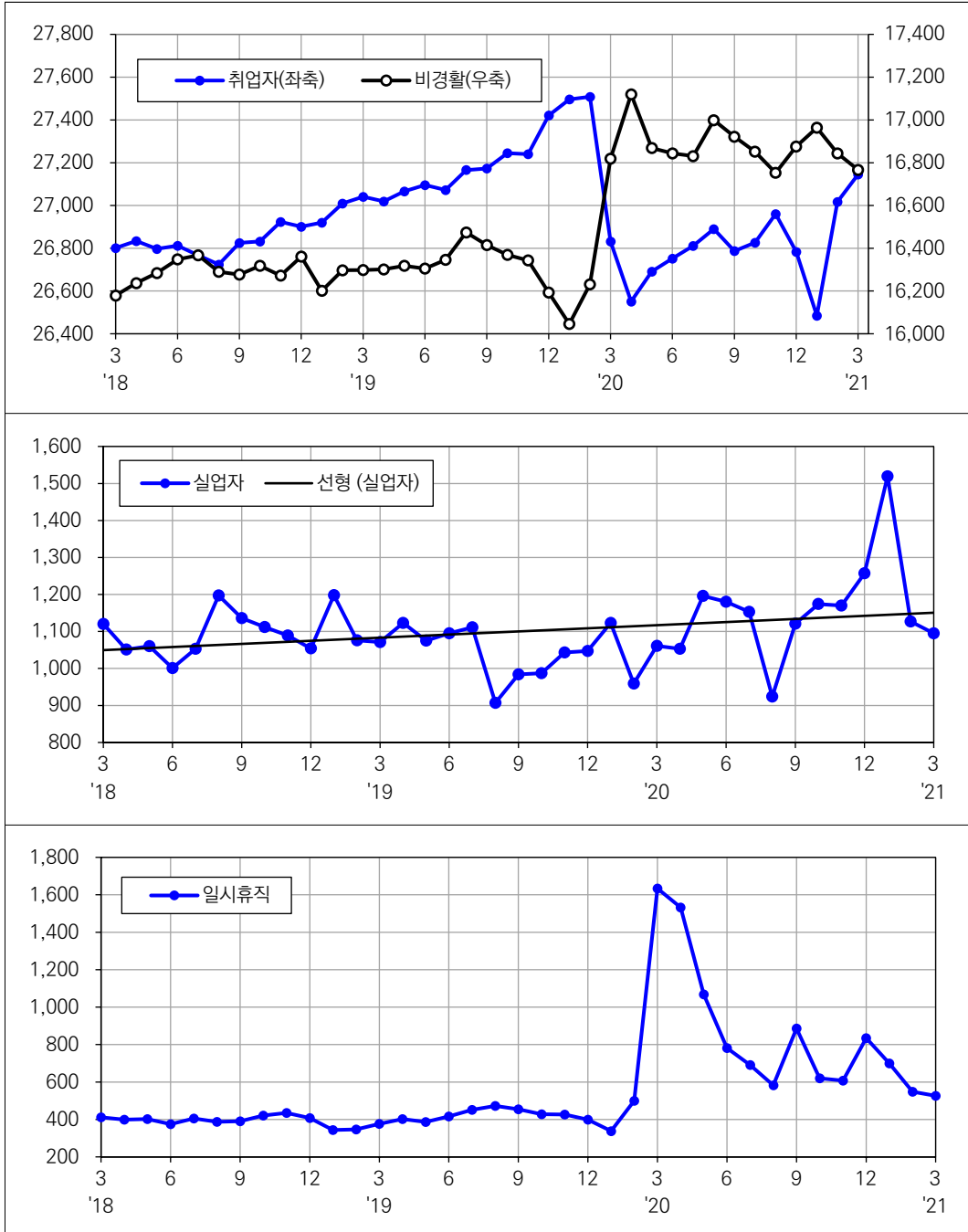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

[그림 2]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일시휴직자 변화

(단위 : 천 명)



주 : 일시휴직자는 X-12 ARIMA를 이용하여 계절조정계열을 산출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1년 3월은 전년동월대비 전 연령에서 고용과 비경황이 개선됨.

- 20대 취업자는 음식·숙박 및 교육을 중심으로 반등하며 증가 전환함. 비경황은 감소 전환함.
-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감소폭이 축소됨. 주로 전문과학기술에서 고용이 증가함.
- 50대는 음식·숙박을 중심으로 고용이 개선되며 취업자가 증가 전환함. 60세 이상 취업자는 공공행정에서 증가 전환하고 보건·복지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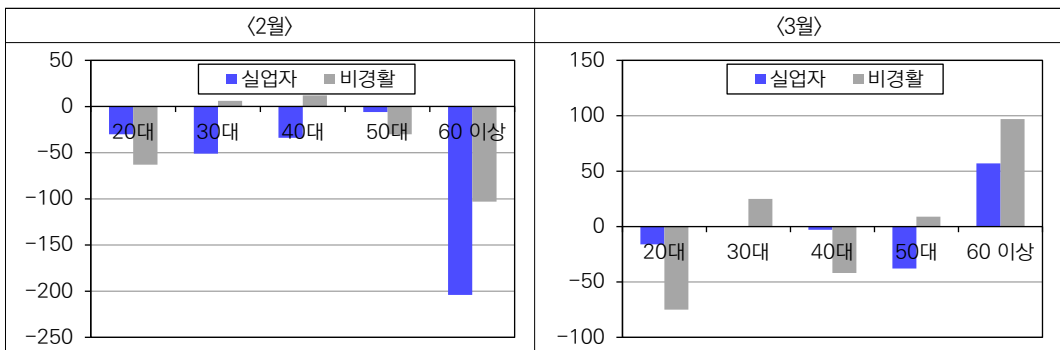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15~19세				20대				30대			
	1월	2월	3월	(전월비)	1월	2월	3월	(전월비)	1월	2월	3월	(전월비)
취업자	-59	-37	18	(34)	-255	-106	130	(89)	-273	-238	-170	(-38)
실업자	-1	3	-2	(2)	53	32	25	(-16)	72	29	38	(0)
비경황	-101	-126	-175	(-49)	231	91	-133	(-75)	52	58	-19	(25)
실업률	3.2	3.2	-2.0	(-0.8)	1.8	1.0	0.3	(-0.6)	1.4	0.7	0.8	(0.1)
고용률	-1.9	-1.0	1.2	(1.4)	-4.2	-1.7	1.8	(1.4)	-2.3	-1.7	-0.8	(-0.4)
	40대				50대				60세 이상			
	1월	2월	3월	(전월비)	1월	2월	3월	(전월비)	1월	2월	3월	(전월비)
취업자	-210	-166	-85	(38)	-170	-139	13	(27)	-15	212	408	(-98)
실업자	51	15	-2	(-3)	44	52	-10	(-38)	199	70	-15	(57)
비경황	94	83	17	(-42)	117	77	-15	(9)	474	379	270	(97)
실업률	0.8	0.3	0.0	(0.0)	0.8	0.9	-0.1	(-0.6)	3.7	1.0	-0.6	(1.0)
고용률	-1.9	-1.4	-0.4	(0.5)	-1.9	-1.5	0.3	(0.3)	-2.2	-0.4	1.1	(-1.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연령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 계절조정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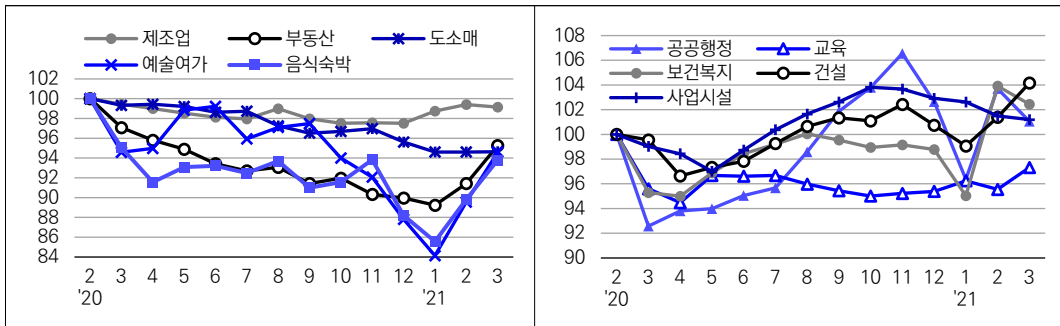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월대비) 산업별로는 공공행정, 보건·복지, 예술·여가, 음식·숙박, 부동산, 건설업, 교육이 회복세인 반면, 제조업 및 도·소매는 정체 상태임. 사업시설은 감소세임.
- 부동산, 예술·여가, 음식·숙박, 건설, 교육은 감소 추세에서 반등함.

[그림 4] 산업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계절조정계열, 2020년 2월을 100으로 정규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증감	증감률
농림어업	-14	33	-26	-5	20	-89	-74	-4.8
광업	-1	-1	-4	0	0	-1	-1	-7.7
제조업	-46	-27	-11	54	30	-12	72	1.7
전기·가스·증기	-3	-5	0	-2	0	0	-2	-2.7
수도·원료재생	16	14	18	-5	-1	5	-1	-0.6
건설업	-20	28	92	-34	47	56	69	3.4
도매 및 소매업	-218	-194	-168	-36	0	1	-35	-1.0
운수 및 창고업	30	25	72	14	7	23	44	2.9
숙박 및 음식점업	-367	-232	-28	-60	97	91	128	6.3
정보통신업	-14	-5	31	-16	9	33	26	3.1
금융 및 보험업	16	5	22	27	-3	9	33	4.3
부동산업	-63	-47	-10	-4	12	21	29	5.9
전문·과학·기술	-15	-8	65	-17	6	20	9	0.8
사업시설관리지원	27	20	28	-4	-15	-4	-23	-1.7
공공행정·사회보장	20	38	94	-71	83	-30	-18	-1.6
교육서비스업	-75	-82	32	16	-13	33	36	2.0
보건 및 사회복지	-74	91	171	-89	211	-35	87	3.7
예술·스포츠·여가	-81	-52	1	-19	28	26	35	7.7
협회·단체·수리·기타	-103	-84	-71	-28	28	-8	-8	-0.7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2	7	4	-7	1	-4	-10	-9.8
국제 및 외국기관	1	2	2	-2	1	0	-1	-5.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로 2021년 3월은 임금근로자에서 전년동월대비 고용이 증가함.

- 상용직은 증가폭이 확대되고 임시·일용직은 증가 전환함.
- 상용직은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에서 증가 전환, 음식·숙박에서 감소폭이 축소됨.
- 임시직은 도·소매,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등에서 증가 전환함. 음식·숙박에서 감소폭이 축소되고 보건·복지에서는 증가폭이 확대됨.
- 일용직은 건설업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음식·숙박에서 증가 전환함.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증감	증감률
상용직	36	82	208	112	34	95	241	1.7
임시직	-563	-317	206	-304	315	156	167	3.8
일용직	-232	-80	41	-40	111	68	138	11.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8	-156	-94	-13	9	-10	-14	-1.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2	45	13	-32	18	-43	-57	-1.3
무급가족종사자	-96	-47	-60	-29	43	-31	-17	-1.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농림어업	-5	-5	-15	4	4	4	-6	-3	6	-3	-2	-2	4	28	3
제조업	38	54	67	-52	-54	-38	-26	-1	-7	-30	-31	-27	28	12	-4
건설업	29	26	41	2	-5	-6	-45	5	51	-12	-10	2	4	11	1
도소매	-36	-55	-75	-68	-39	11	-26	-8	-12	-32	-27	-24	-18	-29	-37
운수창고	-31	-36	-11	12	18	14	9	-1	17	9	11	10	31	34	41
음식숙박	-68	-41	-6	-165	-141	-25	-71	-24	10	-37	-27	-2	2	9	0
정보통신	-17	-6	33	15	14	15	-7	-7	-5	0	-2	-2	-4	-3	-8
금융보험	14	5	5	-4	-8	11	-2	-1	-1	3	3	1	5	8	7
부동산	-7	3	17	-30	-24	-15	-2	-1	-1	-16	-16	-11	3	2	10
전문과학기술	5	-3	50	7	7	9	-2	-1	-2	-11	-14	2	-6	9	10
사업관리지원	58	48	38	-38	-20	-6	-9	-1	0	-4	-12	-14	10	4	6
공공행정	61	41	39	-40	-2	54	-1	-1	1	-	-	-	-	-	-
교육서비스	14	14	8	-50	-54	43	0	1	1	-2	1	-3	-43	-52	-31
보건복지	15	56	35	-70	50	143	-6	-6	-2	-9	-8	-4	-4	-3	0
예술스포츠	10	9	14	-45	-22	17	-20	-22	-22	-6	-13	-12	-14	-6	5
협회단체	-54	-36	-44	-59	-53	-30	-11	-3	8	-10	-11	-7	30	19	9
가구 내 고용	-2	-2	-1	10	16	12	-6	-5	-2	0	0	0	0	-3	-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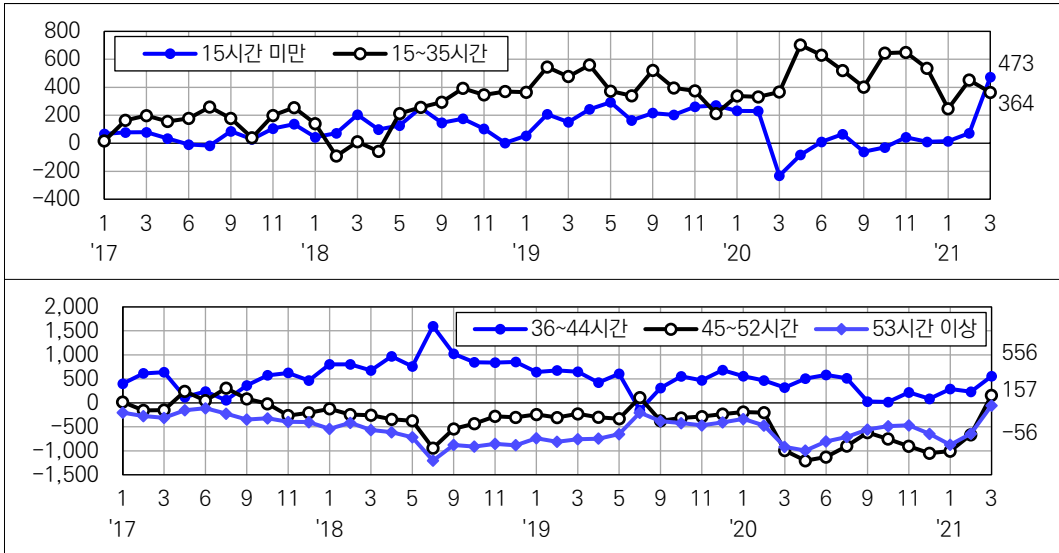


○ 2021년 3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1.0시간 증가하며 증가 전환함.

- 전년동월대비 일시휴직자 비중이 4.4%포인트 감소함. 근로시간별로 1~14시간 취업자는 1.7%포인트 증가, 15~35시간은 1.2%포인트 증가, 36~44시간은 1.5%포인트 증가함.

[그림 5] 근로시간 집단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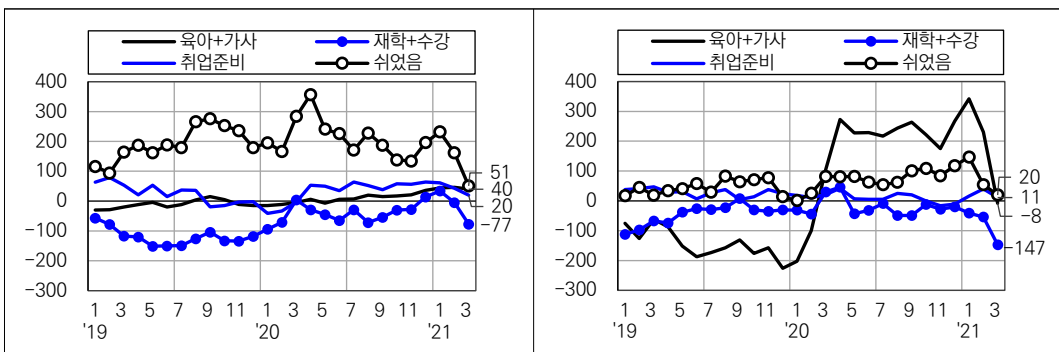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비경제활동인구는 전월동월대비 5만 4천 명 감소하여 감소 전환(2월 56만 2천 명)함.

- 재학·수강은 감소폭 확대. 육아·가사(여성)는 감소 전환. 쉬었음(남성)은 증가폭 축소.

[그림 6] 성별(남자 : 좌, 여자 : 우)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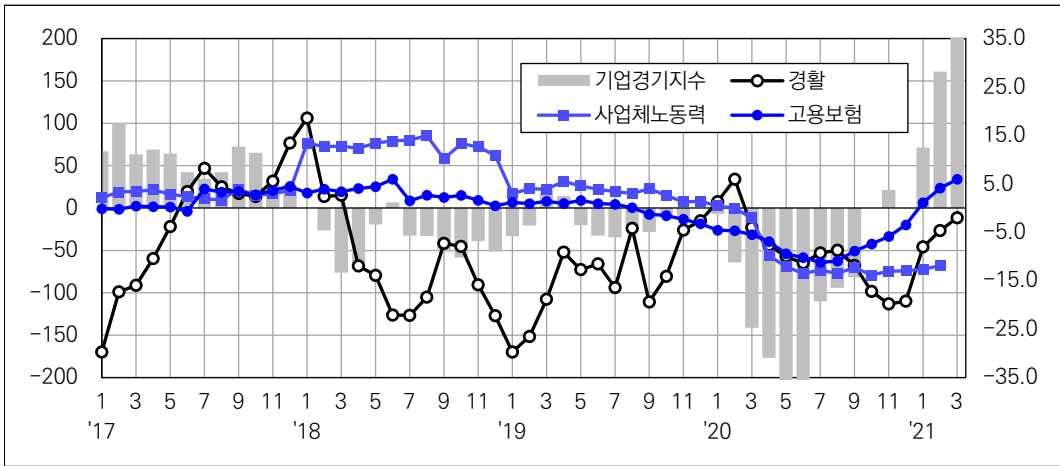
◆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폭 축소, 서비스업은 대면 및 공공서비스에서 취업자 증가

○ 2021년 3월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폭의 축소를 이어 감.

-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경기지수는 증가폭이 확대됨. 피보험자 수로 보면, 제조업 중 고무·플라스틱, 전기장비, 전자통신 및 금속가공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 경찰 계절조정계열 취업자도 추세 이상의 증가를 지속함.

[그림 7]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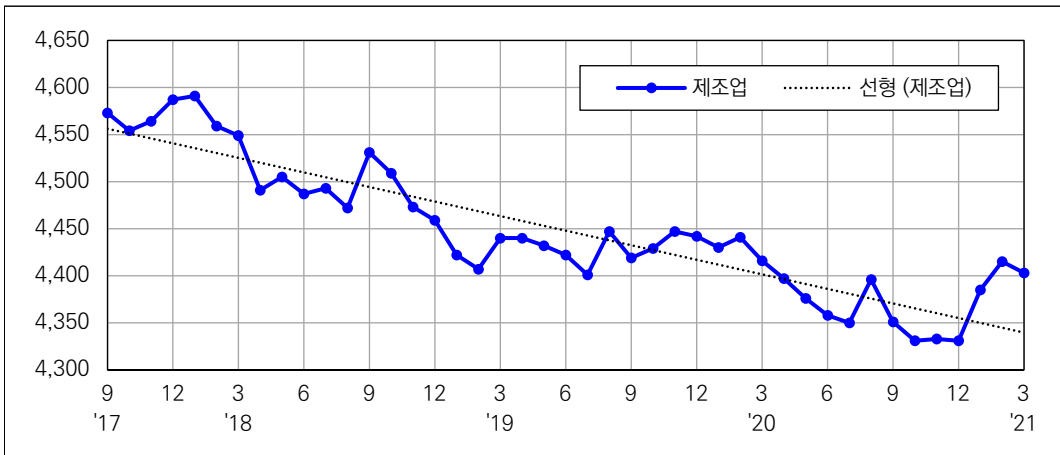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8]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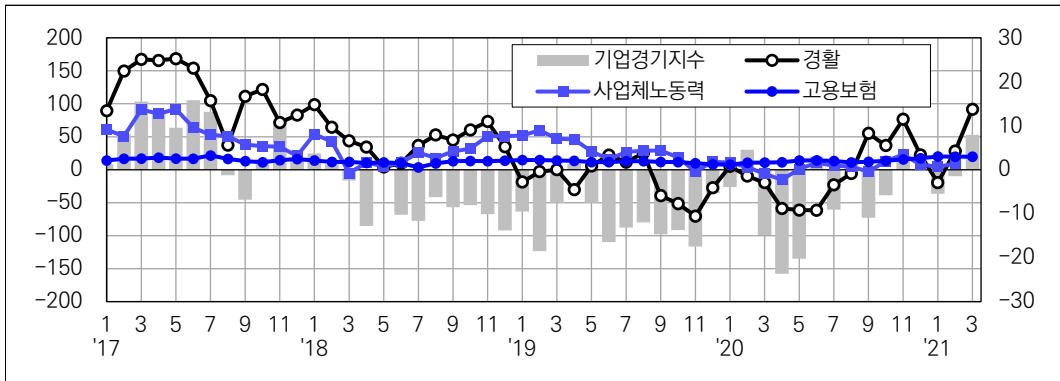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1년 3월 건설업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증가폭이 크게 확대됨.
  - 기업경기지수 역시 증가 전환함.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증가폭을 유지함.

[그림 9]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가율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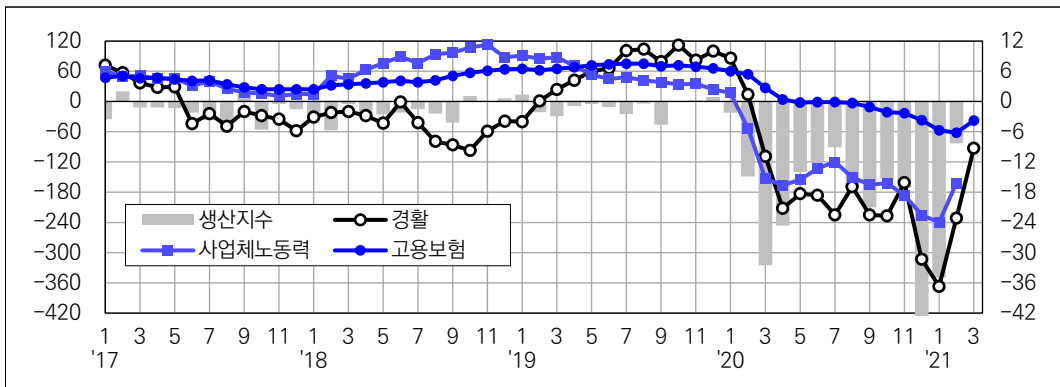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1년 3월은 대면서비스업과 공공서비스업에서 고용이 크게 증가함.
  - (숙박·음식점업)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감소폭이 크게 축소됨.
  - (공공행정) 전년동월대비 임시직의 취업자가 증가 전환하여 취업자 수 증가폭이 확대됨.
  - (교육서비스업) 전년동월대비 임시직, 20대, 여성에서 증가 전환함. 규모별로는 5인 미만과 30~1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증가 전환함.
  - (보건·사회복지) 임시직, 여성, 70세 이상의 증가폭이 확대됨.

[그림 10]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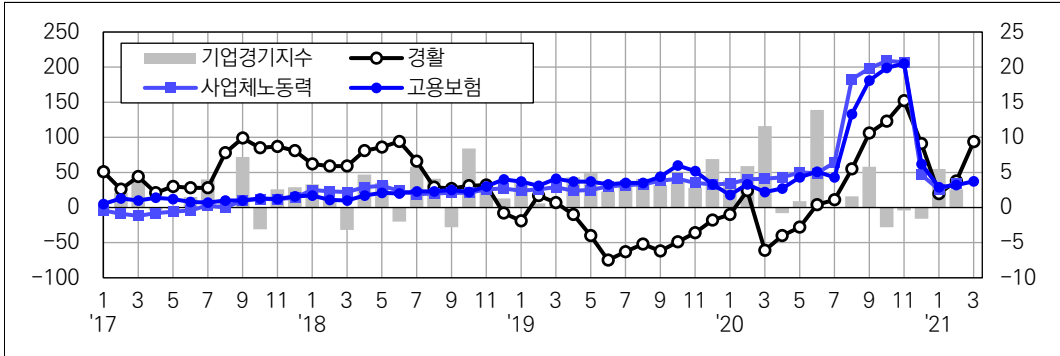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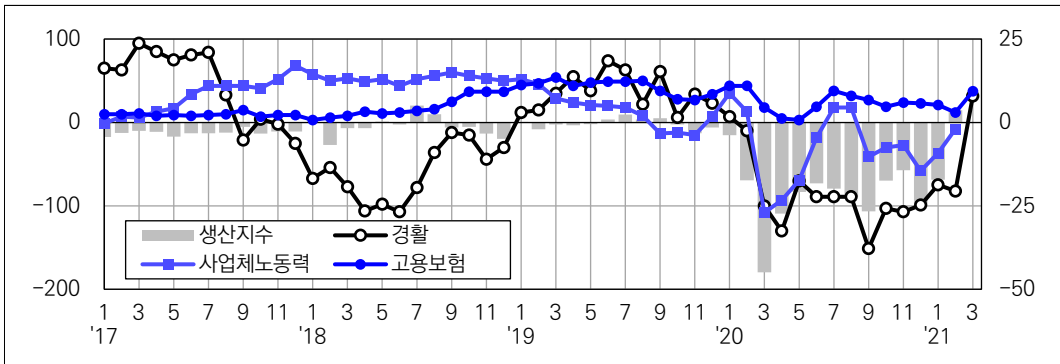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2] 교육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학원)지수(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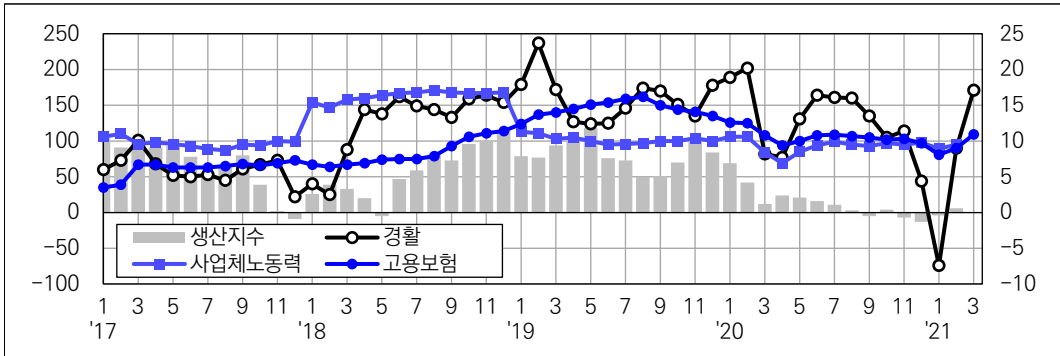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3] 보건업, 사회복지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경기지수(우) 증가율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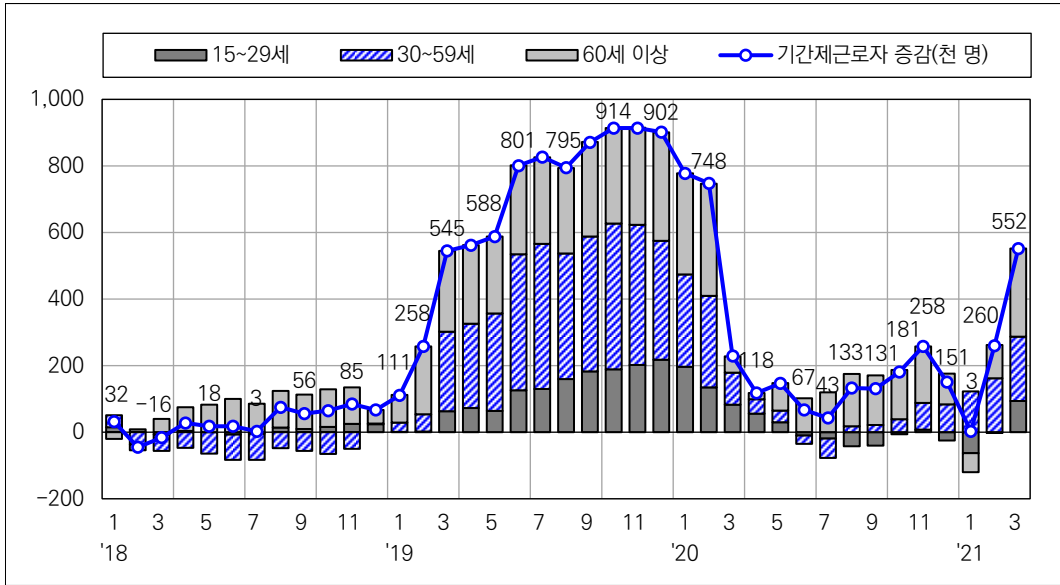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1년 3월 기간제 근로자는 임시직 고용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55만 2천 명 증가함. 주로 30세 미만과 60세 이상에서 증가함. 2019년의 기간제 증가는 2019년 3월 'ILO 신중사상 지위 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병행조사'가 시작된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임.

[그림 14] 연령대별 기간제 근로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지상훈, 동향분석실 연구원)

##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 2021년 1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5.2% 감소

- 2021년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7만 7천 원(-5.2%)임.
  - 2021년 1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408만 7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8% 감소,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171만 4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9% 감소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 감소는 2020년 1월에 지급된 명절상여금 기저효과로 특별급여가 감소한 영향과 코로나19 및 최저임금상승률 둔화로 정액급여 증가율이 둔화된 데 기인함.
  - 비상용(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의 비상용근로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임금총액은 증가하였으나 최저임금상승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임금상승률은 둔화됨.
-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21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5.9% 감소함.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15=100.0)

	2017	2018	2019	2020	2020	2021	
					1월	1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207 ( 3.3)	3,376 ( 5.3)	3,490 ( 3.4)	3,527 ( 1.1)	4,092 ( 3.8)	3,877 (-5.2)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418 ( 2.6)	3,592 ( 5.1)	3,702 ( 3.1)	3,719 ( 0.4)	4,340 ( 3.7)	4,087 (-5.8)
	정액급여	2,764 ( 3.6)	2,891 ( 4.6)	3,010 ( 4.1)	3,077 ( 2.2)	3,139 ( 2.9)	3,217 ( 2.5)
	초과급여	190 ( 0.6)	197 ( 3.7)	202 ( 2.7)	200 (-0.9)	196 ( 2.2)	197 ( 0.8)
	특별급여	464 (-2.2)	504 ( 8.5)	490 (-2.8)	441 (-9.9)	1,005 ( 6.5)	672 (-33.1)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353 ( 5.1)	1,428 ( 5.5)	1,517 ( 6.2)	1,636 ( 7.8)	1,618 ( 5.4)	1,714 ( 5.9)	
소비자물가지수	103.0 ( 1.9)	104.5 ( 1.5)	105.1 ( 0.4)	105.7 ( 0.5)	105.8 ( 1.5)	106.5 ( 0.6)	
실질임금증가율	1.3	3.7	3.0	0.5	2.3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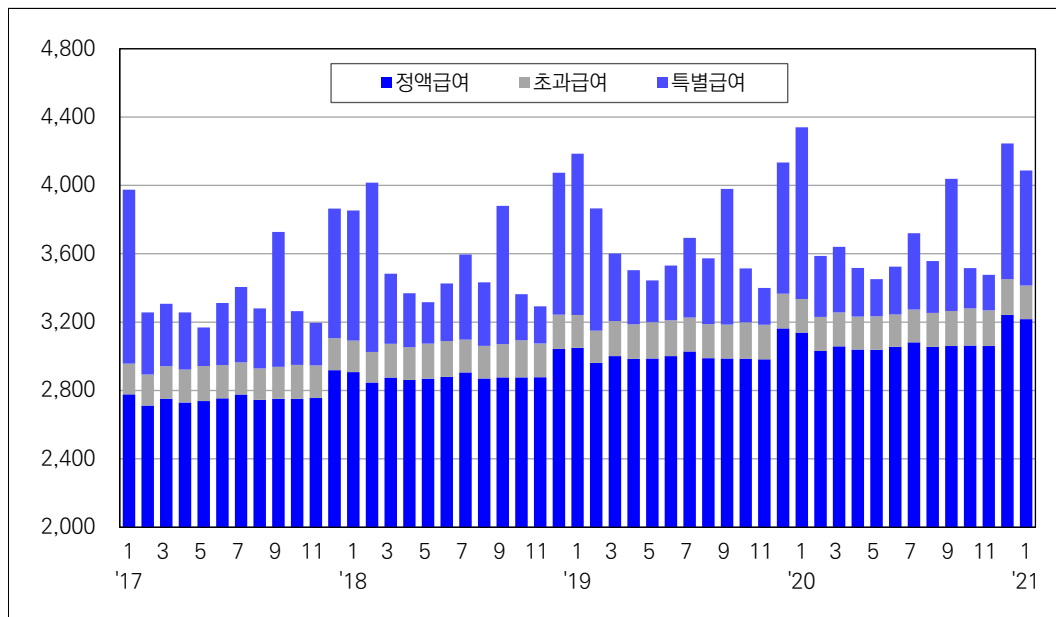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https://kosis.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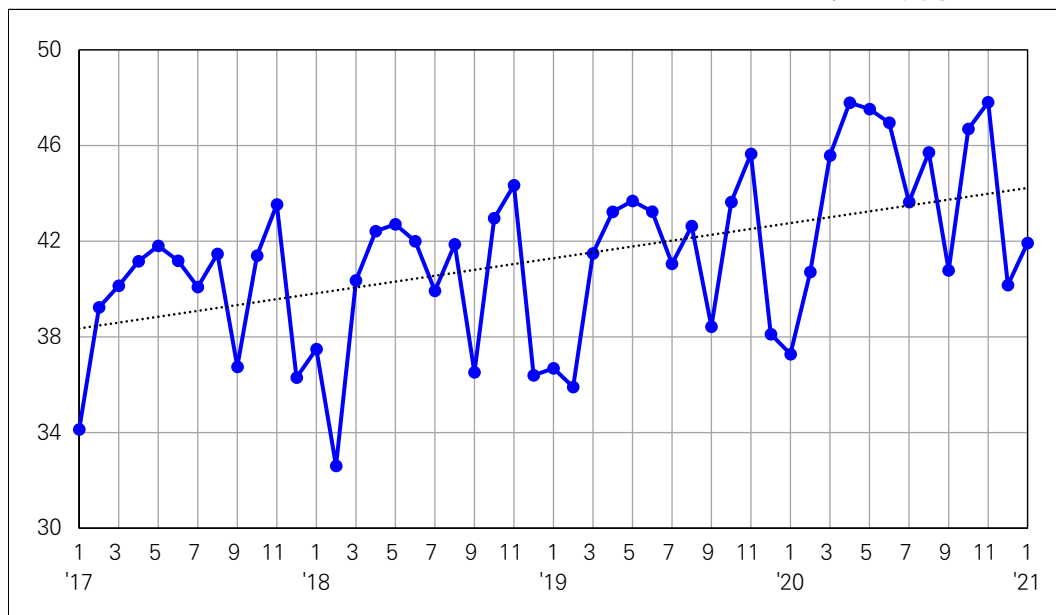
(단위: 천 원)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일용근로자의 상대 임금 비율

(단위: %, 상용직 임금=100)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1년 1월 중소기업 · 대규모 사업체 모두 임금상승률 감소

- 2021년 1월 중소기업 · 대규모 사업체 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5.1%, -7.0%임.
- － 중소기업(1~299인)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5.8% 감소하였으며,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7.2% 감소함.
- － 중소기업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6.4% 증가한 반면 대규모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 임금은 0.1% 감소함.
- － 코로나19와 2020년 1월에 지급된 명절상여금 기저효과로 임금총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제조업 일부 산업에서 특별급여 지급 시기가 변경된 점도 임금 감소에 영향을 줌.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천 원, %)

		2018	2019	2020	2020	2021
					1월	1월
중소 규모	소 계	3,019 ( 4.6)	3,139 ( 4.0)	3,193 ( 1.7)	3,501 ( 5.4)	3,321 ( -5.1)
	상용임금총액	3,217(11.5)	3,338 ( 3.7)	3,377 ( 1.2)	3,720 ( 5.4)	3,503 ( -5.8)
	정액급여	2,723 ( 4.7)	2,841 ( 4.3)	2,915 ( 2.6)	2,952 ( 3.3)	3,030 ( 2.6)
	초과급여	172 ( 4.8)	175 ( 2.0)	171 ( -2.4)	167 (-0.3)	166 ( -0.1)
	특별급여	322 ( 1.9)	322 (-0.2)	292 ( -9.4)	601 (19.3)	307 (-48.9)
	비상용임금총액	1,422 ( 5.3)	1,505 ( 5.8)	1,615 ( 7.3)	1,589 ( 4.5)	1,690 ( 6.4)
대규모	소 계	5,305 ( 6.5)	5,356 ( 1.0)	5,242 ( -2.1)	7,195(-0.9)	6,690 ( -7.0)
	상용임금총액	5,474 ( 6.4)	5,492 ( 0.3)	5,335 ( -2.8)	7,346(-1.2)	6,815 ( -7.2)
	정액급여	3,735 ( 3.8)	3,843 ( 2.9)	3,847 ( 0.1)	4,046 ( 1.2)	4,093 ( 1.2)
	초과급여	324 ( 0.0)	335 ( 3.5)	340 ( 1.4)	338 ( 7.7)	342 ( 1.2)
	특별급여	1,415(15.7)	1,313(-7.2)	1,149(-12.5)	2,962(-5.2)	2,379(-19.7)
	비상용임금총액	1,509 ( 7.8)	1,712(13.4)	2,029 ( 18.5)	2,162(19.6)	2,159 ( -0.1)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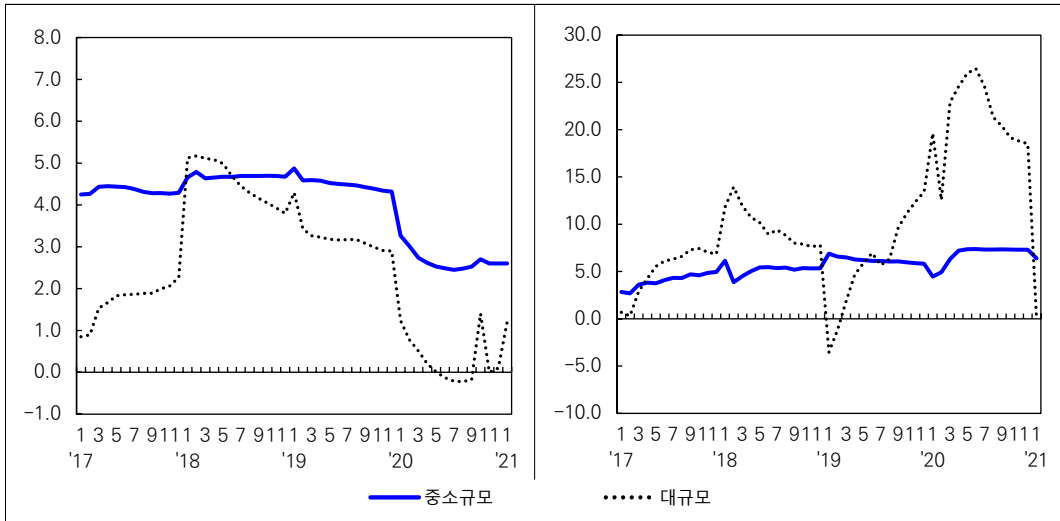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좌, 누계)과 비상용 임금총액 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주: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비상용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1년 1월 근로자 1인당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산업 모두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며, 교육서비스업 임금 감소폭이 가장 큼

○ 2021년 1월 임금총액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770만 5천 원)이었으며, 다음으로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68만 2천 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01만 원) 순으로 나타남.

－ 2021년 1월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91만 4천 원)이며,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48만 7천 원),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271만 3천 원) 순으로 평균 임금(387만 7천 원)과 큰 차이를 보임.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천 원, %)

	2018	2019	2020	2020	2021
				1월	1월
전 산업	3,376 ( 5.3)	3,490 ( 3.4)	3,527	4,092	3,877 ( -5.2)
광업	3,835 ( 3.3)	3,977 ( 3.7)	4,325	4,697	4,590 ( -2.3)
제조업	3,930 ( 6.5)	4,017 ( 2.2)	3,990	5,098	4,851 ( -4.8)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436 ( 2.5)	6,502 ( 1.0)	6,733	5,925	5,682 ( -4.1)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3,288 ( 6.5)	3,506 ( 6.6)	3,888	4,131	3,957 ( -4.2)
건설업	2,784 ( 6.1)	2,951 ( 6.0)	3,032	3,325	3,150 ( -5.3)
도매 및 소매업	3,214 ( 5.4)	3,372 ( 4.9)	3,423	3,903	3,610 ( -7.5)
운수 및 창고업	3,357 ( 6.4)	3,476 ( 3.5)	3,530	3,908	3,861 ( -1.2)
숙박 및 음식점업	1,757 ( 8.1)	1,875 ( 6.7)	1,879	2,023	1,914 ( -5.4)
정보통신업	4,277 ( 3.8)	4,463 ( 4.3)	4,613	5,152	4,968 ( -3.6)
금융 및 보험업	6,026 ( 5.6)	6,236 ( 3.5)	6,526	8,065	7,705 ( -4.5)
부동산업	2,600 ( 6.3)	2,755 ( 6.0)	2,848	3,089	2,905 ( -6.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757 ( 5.9)	4,901 ( 3.0)	4,871	5,559	5,010 ( -9.9)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203 ( 5.5)	2,332 ( 5.9)	2,411	2,540	2,487 ( -2.1)
교육서비스업	3,397 ( 2.5)	3,474 ( 2.3)	3,366	4,100	3,569 (-12.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799 ( 4.8)	2,960 ( 5.8)	2,942	3,191	3,001 ( -5.9)
여가 관련 서비스업	2,684 ( 6.8)	2,819 ( 5.0)	2,873	3,173	2,986 ( -5.9)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401 ( 7.2)	2,517 ( 4.8)	2,563	2,757	2,713 ( -1.6)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2017~2019년 자료는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임.

3)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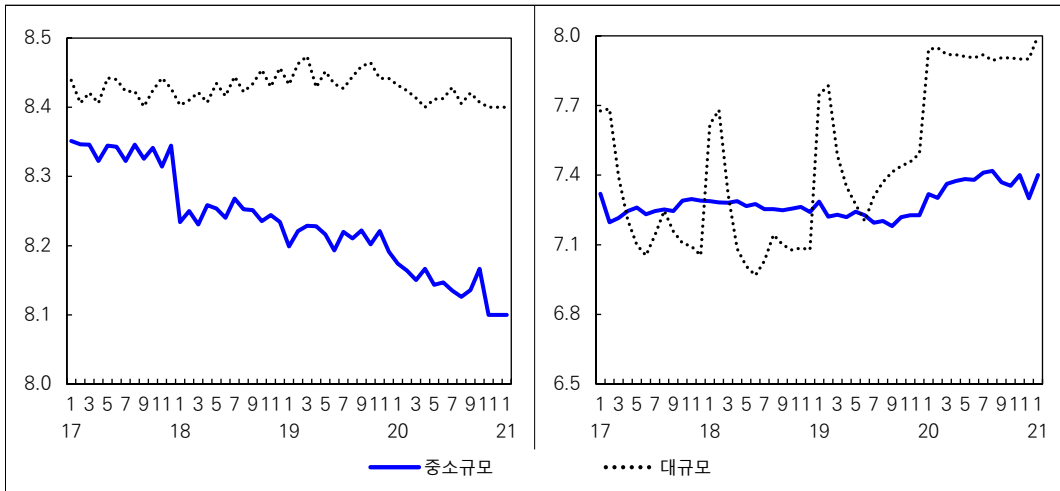
◆ 2021년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57.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3시간 감소(월력근로일수는 20일로 전년동월과 동일)

- 월력근로일수가 전년동월과 동일한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에도 월평균 근로시간이 0.8시간 감소에 그친 것은 2020년 1월 명절연휴로 근로시간이 감소한 기저효과가 작용한 영향임.
- 2021년 1월 중소기업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6시간 감소, 대규모 사업체 월평균 근로시간은 160.3시간으로 1.2시간 증가함.

○ 비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전년동월대비 각각 1.9시간(2.0%), 9.7시간(7.8%) 증가함.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직 일일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비상용 일일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단위 : 시간/일)



주 : 일일평균 근로시간은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시간을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시간, %)

		2018	2019	2020	2020	2021
					1월	1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64.1(-1.5)	163.0(-0.7)	160.1(-1.8)	157.3(-9.0)	156.7(-0.4)
	상용 총근로시간	172.1(-1.3)	171.2(-0.5)	167.6(-2.1)	164.3(-9.3)	163.2(-0.7)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3(-1.0)	162.6(-0.2)	159.8(-1.7)	156.7(-9.2)	155.6(-0.7)
	상용 초과근로시간	9.1(-6.2)	8.6(-5.5)	7.8(-9.3)	7.6(-11.6)	7.5(-1.3)
	비상용근로시간	99.2(-6.1)	95.4(-3.8)	96.1(0.7)	96.6(-5.3)	98.5(2.0)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3.3(-0.7)	164.1(0.5)	162.8(-0.8)	159.1(-8.5)	160.3(0.8)
	상용 총근로시간	166.6(-0.7)	166.3(-0.2)	163.9(-1.4)	160.2(-8.7)	161.0(0.5)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4.9(-0.3)	154.9(0.0)	153.0(-1.2)	148.9(-9.4)	150.0(0.7)
	상용 초과근로시간	11.7(-4.9)	11.4(-2.6)	10.9(-4.4)	11.2(0.9)	11.0(-1.8)
	비상용근로시간	89.2(-1.2)	104.9(17.6)	125.2(19.4)	123.9(-1.3)	133.6(7.8)

주 :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1년 1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광업(179.8시간), 가장 짧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130.1시간)임

- 2021년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광업이었으며, 다음으로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175.1시간), 제조업(170.8시간) 순으로 나타남.
- － 1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이었으며, 다음으로 건설업(135.5시간),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37.4시간), 숙박 및 음식점업(144.2시간) 등으로 전산업 평균 근로시간보다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18	2019	2020	2020	2021
				1월	1월
전 산업	163.9(-1.4)	163.1(-0.5)	160.6	157.6	157.3(-0.2)
광업	176.6( 0.5)	175.7(-0.5)	181.2	169.7	179.8( 6.0)
제조업	177.1(-1.5)	175.9(-0.7)	172.7	168.3	170.8( 1.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2.1(-1.7)	160.4(-1.0)	163.7	161.8	165.0( 2.0)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177.8( 0.4)	178.6( 0.4)	176.5	169.1	175.1( 3.5)
건설업	138.5(-2.4)	136.3(-1.6)	136.9	136.6	135.5(-0.8)
도매 및 소매업	165.2(-1.4)	165.5( 0.2)	163.8	160.2	160.5( 0.2)
운수 및 창고업	166.5(-1.6)	164.3(-1.3)	159.0	159.8	155.8(-2.5)
숙박 및 음식점업	159.7(-0.4)	158.6(-0.7)	149.7	152.4	144.2(-5.4)
정보통신업	161.6( 0.4)	163.9( 1.4)	163.8	159.2	160.0( 0.5)
금융 및 보험업	160.9( 0.2)	161.5( 0.4)	162.1	157.8	158.5( 0.4)
부동산업	178.9(-3.2)	176.4(-1.4)	173.2	169.5	169.4(-0.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0.4( 0.2)	161.4( 0.6)	161.7	156.5	158.1( 1.0)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63.2(-1.2)	162.7(-0.3)	161.7	159.7	158.3(-0.9)
교육서비스업	142.3(-1.5)	142.1(-0.1)	136.6	130.6	130.1(-0.4)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62.5(-1.2)	162.2(-0.2)	158.6	155.9	153.6(-1.5)
여가 관련 서비스업	157.7(-1.1)	156.1(-1.0)	149.7	150.6	137.4(-8.8)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2.0(-1.3)	159.9(-1.3)	160.3	154.4	159.6( 3.4)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2017~2019년 자료는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임.

3)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1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은 5건
  - 3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2건)보다 3건 많은 수치임.
- 2021년 3월 조정성립률 0%
  - 3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50.0%에 비해 50.0%포인트 낮아진 수치임.

<표 1> 2020년, 2021년 3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1. 3.	5	2	0	0	0	0	0	0	0	2	3	0.0%
2020. 3.	2	2	1	0	1	1	0	1	0	0	1	5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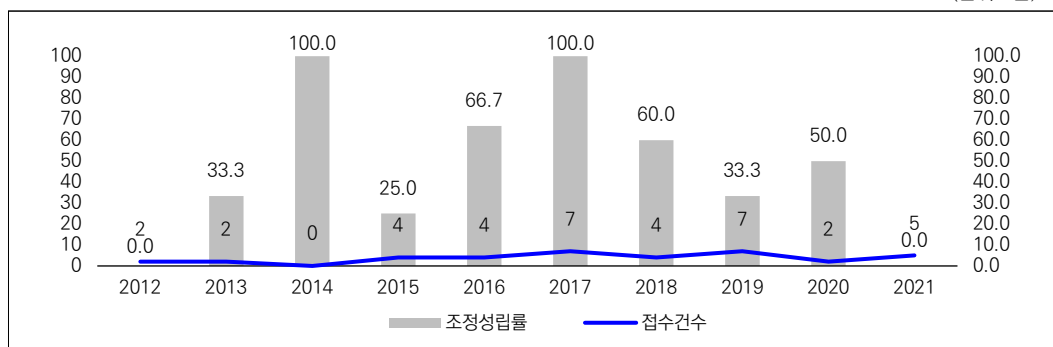
<표 2> 2012~21년 3월 접수 건수 및 조정성립률 추이

	2012. 3.	2013. 3.	2014. 3.	2015. 3.	2016. 3.	2017. 3.	2018. 3.	2019. 3.	2020. 3.	2021. 3.
접수 건수	2	2	0	4	4	7	4	7	2	5
조정성립률	0.0	33.3	100.0	25.0	66.7	100.0	60.0	33.3	50.0	0.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그림 1] 2012~21년 3월 접수건수 및 조정성립률 추이

(단위 : 건, %)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심판사건

- 2021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은 183건
  - 3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152건)보다 31건 많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6.8%(63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73.2%(172건)를 차지함.

〈표 3〉 2020년, 2021년 3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1. 3.	183	235	54	9	101	18	27	26	514
2020. 3.	152	128	28	3	55	10	27	5	454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1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은 7건
  - 3월 복수노조사건<sup>1)</sup>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0건)보다 7건 많은 수치임.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0.0%(0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100.0%(4건)를 차지함.

〈표 4〉 2020년, 2021년 3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1. 3.	7	4	0	0	3	1	0	0	7
2020. 3.	0	1	1	0	0	0	0	0	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1) 복수노조 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 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한다.

◆ 카카오뱅크 노조 설립

-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 산하 분회로 설립
  - 3월 25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에 노동조합이 설립됐다고 밝혔다.
  - 카카오뱅크 노동조합은 카카오지회 산하의 분회 형태로 조직되었음.
  - 카카오지회는 “회사의 유례없는 실적과 별개로 임직원이 받는 보상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오히려 작년보다 못한 경우도 있다”며 설립 동기를 설명하였음.
  -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은행 중 규모가 가장 크며 2020년 1,136억 원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음.
  - 카카오지회에는 카카오뱅크분회 이외에도 엑스엘게임즈분회, 카카오엔터프라이즈분회, 티케이테크분회까지 총 4개 분회가 있음.

◆ LG베스트샵 판매 직원 노조 설립

- LG전자 계열사 하이프라자, 금속노조 가입
  - 4월 5일 LG베스트샵 영업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가입 원서를 받기 시작해 이날 오후 기준 250여 명이 노조에 가입했음. 이들은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를 통해 모였고, 20~30대를 중심으로 가입했음.
  - 노조는 회사가 매니저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었다고 설명하였고 저성과자에 대한 권고사직과 모바일매니저 고용 불안도 노조 설립 배경이 되었음.
  - 현재 근로계약서에 성과 측정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도 평가 결과에 따라 권고사직을 강요받고 있었음. 또한 LG전자가 모바일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스마트폰 같은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직원들의 고용 불안도 가중되고 있음.
  - 노조는 △물동량 예측 실패 부담 떠넘기기 중단 △무분별한 해고 금지 △모바일 담당자 고용 유지 등을 포함해 조합원 의견을 수렴해 회사에 교섭을 요구할 예정임.

◆ 금속노조 자동차검사정비지회(준) 출범

- 지회 가입 대상은 민간 검사소 자동차 검사원
  - 4월 10일 금속노조는 자동차검사정비지회(준) 출범식을 했다고 밝혔음.

- 지회 가입 대상은 민간 검사소 자동차 검사원임.
- 지회(준)의 주요 현안은 △노동권 사각지대 △뿌리 깊은 불법 관행 △법령 개정에 따른 불이익임.
- 자동차 검사원이나 정비사는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 전후로 무료 노동을 하거나 휴식시간·점심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노동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임.
- 노조와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6월부터 두 달간 자동차 검사원과 정비사 33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명 중 2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노조는 전국 6천여 개 사업장에 흩어진 자동차 검사원과 정비사를 가입시킬 예정임.

### ◆ 중노위 “MBC 보도국 작가 노동자 맞다”

#### ○ 방송작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첫 인정

- 3월 19일 중노위는 “지난해 문화방송 <뉴스투데이> 작가 2명이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초심을 취소하고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고 밝혔음.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A씨와 B씨는 모두 2011년부터 문화방송 아침 뉴스 프로그램 <뉴스투데이>에서 일부 꼭지를 맡은 작가로 일하다가, 2020년 6월 ‘프로그램 개편을 위한 인적 쇄신을 한다’는 이유로 해고됐음.
- 두 작가는 “지난 9년 동안 문화방송에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맡아서 정규직 노동자처럼 일했다”고 주장하며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지만, 지노위는 신청을 각하했음. 이에 두 작가는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재심 신청서를 냈음.
- 중노위는 재심에서 문화방송의 우월적 지위를 강조하며 △뉴스 원고 작성 과정에서 문화방송 직원들이 작가들을 어느 정도로 지휘, 감독하는지 △작가들이 받는 보수의 성격이 예측 가능하고 고정적인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작가들이 문화방송에 어느 정도로 전속되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따졌음.
- 문화방송 사측은 ‘방송 제작의 특수성’과 ‘작가의 재량권’을 근거로 프리랜서 업무임을 강조했지만, 중노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 3월 산재 사망 60명, 절반이 하청노동자

#### ○ 하청·이주노동자, 건설·제조업에서 주로 발생



- 4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2021년 3월 발생한 중대재해는 58건임. 노동자 60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음.
- 사고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많이 발생했음. 건설업이 31건(53%), 제조업 20건(34%), 그 밖의 기타업종이 7건(12%)이었음.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끼임(9건)과 부딪힘(5건), 맞음(5건)이 뒤를 이었음.
-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 60명 중 27명(45%)은 하청노동자였고, 9명(15%)은 이주노동자였음.
-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누적된 중대재해는 모두 147건임. 노동자 149명이 숨졌음.

### ◆ ‘법외노조 통보’ 사라진다

#### ○ 2020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 3월 17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6일 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음.
- 개정안은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은 노조가 이후 노조법상 결격 사유가 발생해 노동부의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문구를 삭제하는 것임.
- 현행법에서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노조는 단체교섭, 쟁의행위를 비롯한 노조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함.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고자가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각각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음.
- 정부의 시행령 개정은 2020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임. 당시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이 시행령 조항을 무효로 판단했음. 행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시행령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에 어긋난다는 것임.
- 개정 노조법과 시행령은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임.

### ◆ 경기도, 퀵서비스 등 배달노동자에게 산재보험료 90% 지원

#### ○ 2,000명 대상 최장 1년까지

- 3월 18일 경기도,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음. 업무협약은 경기도 내 배달 및 퀵서비스 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경기도가 보험료의 약 90%를 지원한다는 내용

- 을 담고 있음.
- 현재 특수고용직 종사자인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료는 월 1만 3,810원임. 산재보험료는 고용주가 50%, 배달노동자가 50%를 부담함.
  - 현재 특수고용직 종사자인 퀵서비스 기사가 경기도 지원(1만 2,420원)을 받을 경우 퀵서비스 기사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월 1,390원으로 낮아짐. 배달노동자에 대한 경기도의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이며 2021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함.
  - 경기도가 4월부터 분기별 사업주 및 노동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 ◆ '강원형 취직 사회적책임제' 2종 세트 추진

#### ○ 정규직 1인 고용 시 1년간 월 100만 원 지원

- 3월 25일 강원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실직자를 구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원형 취직 사회적책임제' 2종 세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총사업비 규모는 정규직 일자리 확충 1,200억 원,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한 용자 및 이자 지원 등 2,088억 원, 고용 유지 인센티브 600억 원 등 3,888억 원임.
- 먼저 1단계로 올해 신규 정규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0만 원의 인건비를 1년간, 1만 명에게 지원함.
- 2단계로 2,000억 원 규모의 고용 창출·유지 자금을 조성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1명을 채용할 때마다 3,000만 원씩,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용자 지원을 하기로 했음.
- 용자 지원 한도는 1명 채용 시 3,000만 원, 2명 6,000만 원, 3명 9,000만 원, 4명 1억 2,000만 원, 5명 이상 1억 5,000만 원임. 이를 통해 6,5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임.
- 기업의 부채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2년간 이자와 보증료도 전액 지원함. 고용 창출·유지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3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용자금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지원할 방침임.

### ◆ 돌봄휴가 쓴 노동자에게 최대 50만 원

#### ○ 고용노동부, 4월 5일부터 신청받아

- 4월 4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지원 대상은 가족의 코로나19 감염이나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휴원·휴교·격일 등교·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노동자임.

- 1인당 하루 5만 원씩 최장 10일 동안 총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노동자도 지원받을 수 있음.
- 2020년 노동자 13만 9,662명이 가족돌봄휴가 비용으로 총 529억 원을 지원받았음. 지원받은 노동자의 사업장 규모별 분포는 10인 미만 28.2%, 10~100인 미만 23.9%, 100~300인 미만 9.1%, 300인 이상 38.9%임.
- 지원은 노동부 홈페이지,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젊은 여성 3명 중 1명 “죽고 싶었다”

○ 지난 1년간 코로나 우울 겹쳐

- 3월 11일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한 ‘청년의 생애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미래 전망 연구’ 결과를 공개하였음.
-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자살 충동을 느꼈는지 묻는 질문에 여성의 32.8%가 ‘그렇다’고 응답했음. 남성(19.4%)보다 높은 비율임.
- 여성 45.7%가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무력감·절망감을 자주 느낀다고 답했고, 12.7%는 자살 충동이 늘었다고 했음. 같은 답을 한 남성 비율은 각각 31.4%, 8.7%였음.
- 코로나19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응답과 가사·돌봄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도 여성(각각 56.6%, 46.6%)이 남성(52.0%, 40.0%)보다 다소 높았음.
- 남녀는 성평등에 대한 인식도 달랐음. 청년 여성의 74.6%가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한 반면 청년 남성의 51.7%는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했음.
- 실제로 여성과 남성 모두 가족·학교·직장에서 보이지 않는 성차별 관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직장에서 여성 직원이 주로 다과와 음료를 준비한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 51.8%, 남성 29.6%였고 학교에서 무거운 것을 드는 일을 할 때 남학생에게 더 많이 시켰다는 응답은 남녀 모두 80%를 넘었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0년 10~11월 만 19~34세 청년 6,57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음.

◆ 코로나19 실직,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5배 많아

○ 비정규직일수록 피해 큰데, 보호는 더 못 받아

- 3월 29일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직장인 1천 명(상용직 600명·비상용직 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 직장인 43.9%가 고용 불안을 느꼈음. 비정규직은 63.8%가 고용 불안을 경험했는데, 이는 정규직(30.7%)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임. 고용 불안을 느끼는 이유를 묻자 ‘회사 경영

- 실적이 좋지 않아서'(22.6%)와 '대체하기 쉬운 직무여서'(22.1%)라는 답이 많았음.
- 전체 노동자 중 18.6%가 2020년 1월 이후 실직을 경험했는데, 비정규직 비율이 압도적이었음. 비정규 노동자는 35.8%, 정규직은 7.2%였음.
  - 또한 실직을 경험한 노동자 186명 중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노동자는 24.2%에 불과했는데, 비정규 노동자의 경우 그 비율이 현저히 낮았음. 실직 정규직 노동자는 44.2%, 실직 비정규 노동자는 18.2%가 실업급여를 수급받았음.

(조규준, 동향분석실 연구원)